

#덕분에챌린지

코로나이겨내기 특별방문전시



기획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

참여작가 d'strict 이이남

협력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
서남병원 부산의료원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
대구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대전보훈병원

후원 NEXN 넥센타이어(주) LEE LEE NAMS STUDIO 이이남스튜디오

[작가 및 작품소개]

"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에게
예술을 통한 휴식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<힘나는예술여행>이라는 이름으로
전국 9개소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찾아갑니다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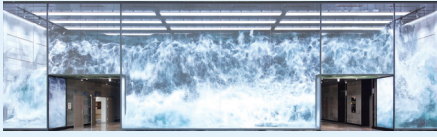
d'strict

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미디어아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그룹입니다.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자 넥센타이어(주)가 소유, 후원한 d'strict 작품 7점이 전시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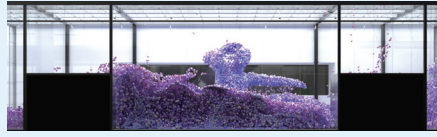
이이남

난징 국제아트 페스티벌 우수작가상을 수상하고,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예술친선대사를 역임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. 이번 전시에서는 '다시 태어나는 빛-19'이라는 주제로 고전회화를 재해석한 작품 3점을 선보입니다.

d'strict



1. 두드리다



2. 숫구치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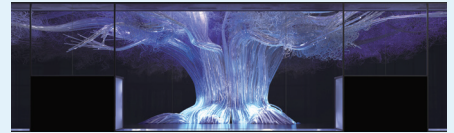
3. 협력 I



4. 협력 II



5. 오르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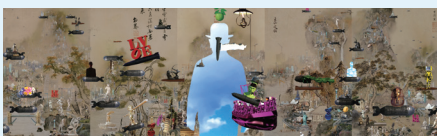
6. 트리

파도를 주제로 한 <두드리다>는 끊임없이 두드리고 부딪히는 파도처럼 코로나 시대의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싸워내는 의료진의 **‘도전’** 정신을 보여줍니다.

불꽃, 선, 조각상들이 조화를 이루어 완성하는 강인하고도 유연한 몸짓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의료진의 **‘협력’**을 표현합니다.

<트리>는 이러한 의료진의 ‘도전’과 ‘협력’이 큰 줄기들을 이루어 코로나19로 지친 환자와 국민들에게 **‘생명력’**을 불어 넣어주는 "나무"로 성장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.

이이남



1. 만화-병풍 II-상상된 경계들



2. 고흐 별이빛나는 밤에



3. 크로스 오버 쇠라

‘다시 태어나는 빛-19’라는 주제 아래 겸재 정선, 고흐 등 동·서양의 대표 고전회화를 디지털 미디어 형식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입니다.

이이남 작가는 코로나19로 외부와 단절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**빛과 고전회화**를 매개로 가상의 풍경을 선사하고자 하였습니다.

여러 폭의 동양 산수화들은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서정적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**힐링과 희망의 메시지**를 전달합니다.